“선거는 축제”…광주·전남 투표 독려 이벤트 봇물

SNS 기발한 인증샷 물결…식당·카페·경비행기 등 할인 행사
제과점 선거빵 인기…정관스님 발우공양 통해 투표 독려 눈길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에서 투표 문화가 일종의 축제처럼 번지고 있다.

광주·전남 곳곳의 가게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이색 마케팅을 하고, 시민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등 선거 열풍이 불고 있다.

사전투표일인 지난 29~30일 이후 SNS에는 광주·전남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과거 손등에 도장을 찍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만든 ‘투표 인증 종이’를 공유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투표 인증 종이는 투표와 관련된 그림이나 글귀를 인쇄하고 선거 기표 도장을 찍어 투표 인증을 하는 새로운 투표 문화다.

SNS에 올라온 투표 인증 종이는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학교 ‘호그와트 입학통지서’를 패러디하거나 게임 ‘포켓몬스터’를 묘사한 사례, 게임 내 캐릭터 ‘피크민’을 활용한 그림 등 각양각색이었다.

광주 지역의 한 시민은 식물 줄기가 미리 그려져 투표를 하면 꽃이 피어나게 그려진 인증 종이, PC 설치프로그램 디자인을 차용해 ‘민주주의 설치 프로그램’에 인증 도장을 찍고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파면까지 의미를 투표 인증 종이에 담은 사례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한강작가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차용해 투표 인증을 하기도 했다. 해당 용지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라는 당시 한강 작가의 말이 쓰여있었다.

한 시민은 준비한 인증 종이를 가져오지 못해 휴대폰 화면에 띄운 후 도장을 찍은 뒤 그 모습을 영상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은 마치 ‘수능 수험생 할인’처럼, ‘투표 인증 시 할인’ 이벤트를 잇따라 개최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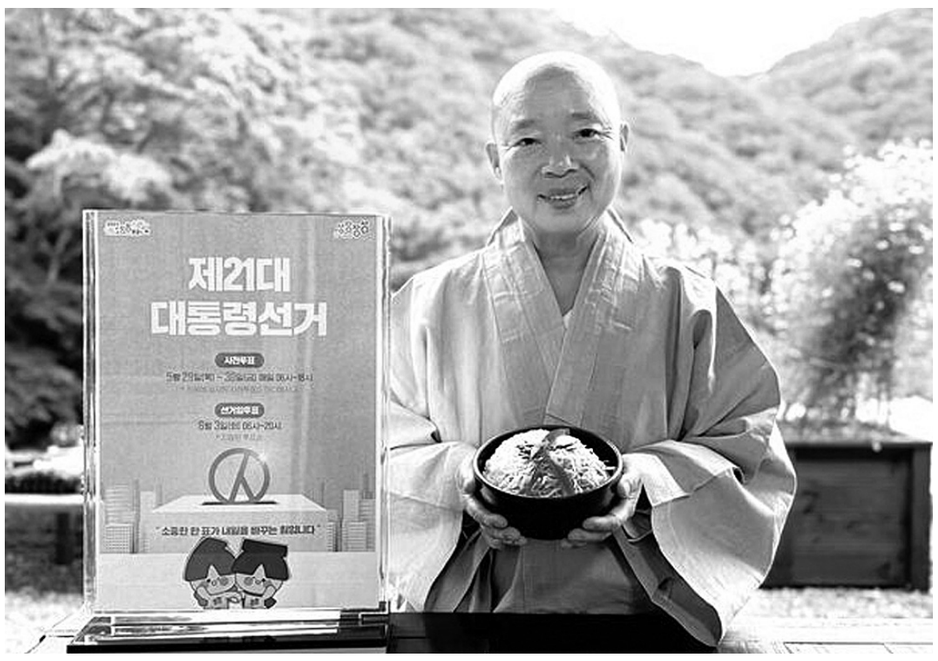
장성 황룡면 한양항공은 선거 인증 사진을 제시하면 7만원이던 경비행기 체험비를 6만3000원으로 한 달간 할인한다.

화순군은 음식점 21곳과 협약을 통해 사전투표일부터 본투표 다음날인 4일까지 투표 인증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광주시 수완지구 미용실 ‘킹스맨바버샵’, 포쉬네일(신세계·하남점), 광양 쿠나카페 등도 투표 인증 시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광주 북구에선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는 식당, 카페, 미용실 등 90여개 매장에서 본투표일에도 유권자에게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지역 제과업체들은 선거 상징을 접목한 빵을 제작해 유권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궁전제과는 지난 17일부터 둥근 빵 위에 도장을 형상화한 표식을 찍은 ‘선거빵’을 판매 중이다. 도장 모양은 ‘점 복’(卜) 자로, 표면에 설탕을 뺀 캐러멜로 장식했다. 판매 첫날부터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29일 기준 누적 판매량은 7400개에 달한다.



‘사찰음식 명장’ 장성군 백양사 천진암 정관스님이 발우공양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브레드세븐도 지난 15일부터 평일 700개, 주말 1000개 규모로 선거빵을 판매하고 있다. 총 4개 매장에서 현재까지 5만7600개를 판매했다.

베비에르 역시 매장 1곳 당 100여개씩 선거빵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 광주전남지회는 회원 제과점 20여곳에서도 선거빵을 판매하고 있으며 2일까지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교 대한제과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기존 인기 제품에 선거일과 투표 도장을 상징하는 요소를 더했다”며 “이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의 참여를 북돋고자 했다”고 말했다.

장성 백운카페도 선거 도장을 본뜬 빵 4종을 제작해 판매 중이다. 백양사 천진암 정관 스님은 발우공양에 선거 상징 장식을 더한 인증샷으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한 누리꾼이 영화 해리포터의 장면을 패러디해 제작한 투표 인증 종이(위)와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한 투표 인증 종이.

투표용지 찢고 사진 찍고…선관위 초긴장

광주서 사전투표 “잘못 찍었다”며 잇단 훼손…본투표 관리 비상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30일 사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르면서 본투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사전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A씨는 “도장을 다른 곳에 잘못 찍었다. 어차피 무효표가 됐다”라는 이유로 해당 투표용지를 찢어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관위 직원의 지시 하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광주서부경찰은 서구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60대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께 “기표를 잘못했다”며 선거관리원에게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효표 아니냐”며 기표용지를 찢고 투표소를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기표소 내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촬영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진을 자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동구 이번엔 오징어게임 로고 협의없이 사용?

저작권 침해 논란 일 수도
‘뉴진스 물의’ 이어 또 시끌

광주시 동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콘텐츠를 활용한 행사를 개최키로 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소속사와 협의 없이 ‘뉴진스 데뷔 2주년 축하 카페’를 열었다가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던 전례를 들어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는 오는 7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차 없는 거리’ 행사 중 전일빌딩245 앞 ‘쉬자잉’ 부스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행사 참가자 모집 포스터에 포함된 로고가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매우 흡사하다는 데 있다.

행사를 기획한 기획사 측은 ‘똑같이 베낀 것이 아니라 살짝 변형했으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기획사 관계자는 “폰트나 디자인을 직접 베끼지 않았으며 창작적으로 변형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5년간 디자인 활동하면서 영화 패러디도 자주 해왔고 문제된 적 없다. 법적 기준 안에서 창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정희 변호사는 “상표 등록이 돼 있는 한 원저작자의 요청 시 행사 취소나 손해배상을 요구해 올 수 있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나이키 로고를 살짝만 변형한다고 해서 아예 다른 로고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을 느낄 수 있다면 표절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7월 충장로 ‘K-POP 공유카페’에서 ‘뉴진스(New jeans) 데뷔 2주년 축하 카페’ 행사를 열려다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사 ‘어도어’ 측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지적을 받아 행사를 취소했다.

동구청은 “기존에도 다른 지자체 등에서 오징어게임 로고를 많이 사용해 왔던 데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추후 문제가 제기된다면 행사장에서 코스튬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도, 담양군 폐기물 수수료 유용 위탁업체 수사 의뢰

담양군이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을 위탁한 업체가 수수료 6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남도는 위탁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담양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42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1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징계 및 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2억1100만원에 대한 회수·감액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2020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담양군 본청과 직속 기관·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담양군이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로 위탁한 A기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6억3324만원을 사적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기업은 폐기물 수수료 전액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바로 납입해야 하지만 경조사, 공채매입, 비품구매 등 사업 운용자금으로 유용한 후 군 금고에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